

# 기아차 광주공장 증설공사 노사 충돌

## “합의없이 강행” “휴가기간 공사 불가피” 공사 중단...내년 62만대 증산 차질 우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추진 중인 62만대 증설 공사 과정에서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장기화되면 내년 초 본격 가동 예정인 62만대 증산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8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연간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에 따라 광주시 서구 내방동 사원 체육시설과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만7448.12㎡ 규모의 제2공장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공사는 전차·의장

공장 신·증축과 공정별 생산라인을 설치한 뒤 다음달 22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 달 가량 제2공장 가동을 멈추고 생산라인 연결공사 및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과 29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이 증설공사를 강행해 노조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노조는 “노사간 부서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공사를 강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2공장 장실 점거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사측은 “휴가 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생산차질이 발생한다”며 직원 200여 명을 동원,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는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휴가 복귀 후 첫 출근 날인 지난 6일 제2공장 가동을 주·야간 4시간씩 총 8시간을 중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또 오는 10일 오후 일단협과 관련해 주·야간 4시간씩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측은 지난 6일 제2공장 증설 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며, 이날까지 3일째다.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다음달 22일부터 한 달 가량 예정된 라인

연결공사와 시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사측은 추석 연휴에 맞춰 공장가동을 중단한 뒤 라인연결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2공장 증설 공사 가운데 조립라인의 공정수를 늘려달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측이 증설공사를 강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부서협약에 앞서 재발 방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99개 항목 중단 1건이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휴가기간에 공사를 못하면 평일에 라인을 멈춘 채 공사를 진행해야 해 생산손실이 최대 7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8일 오후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시민광장 '2012 미리보는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에서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이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들이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미리보는 광주비엔날레 광주신세계 백화점 홍보관 오픈

(주)광주신세계가 8일 2012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백화점 1층 시민광장에 비엔날레 홍보관을 열었다.

이날 오후 열린 홍보관 오픈 기념식에는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이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 승효상 예술총감독, 김형수 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비엔날레 홍보관은 오는 9월6일까지 운영되며 스코틀랜드의 '100대의 자전거' 등 참여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홍보 동영상도 볼 수 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지금까지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총 12억5000만원을 후원해왔으며, 올해도 기금 1억원을 추가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호남지역 중고차 구매 피해 사례 62%

### “실제 성능 점검기록부와 달라”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중고차 구매에 따른 피해 사례는 차량 성능·상태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내놓은 '2010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모두 104건이 접수됐다.

2010년 38건에서 2011년 48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1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62.5%(6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4.8%(5건)', '계약금 환급 지연 3.8%(4건)', '명의이전 지연 1.0%(1건)' 등의 순이었다.

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불량 28.8%(30건),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20.2%(21건), 주행거리 차이 12.5%(13건), 침수차량 미고지 1.0%(1건) 등이다.

특히 중고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04건 가운데 처리불능 등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57.7%(60건)로 배상받은 사례 42.3%(44건)보다 많았다.

지역별 피해구제 건수는 광주 33.6%(35건), 전남 32.7%(34건), 전북 27.9%(29건), 제주 5.8%(6건) 등을 차지했다.

분쟁 발생 시점은 1개월 이내가 69.2%(72건)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11.5%(12건), 2~3개월 7.7%(8건), 3개월 이후 11.5%(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강호인 조달청장 내광

강호인 조달청장은 9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강 청장은 이날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정보센터 신사옥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나주시 소재 우수조달업체(주)



역경제인과 간담회도 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수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강 청장은 또 광주조달청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직원과 대화, 지역경제인과 간담회도 연다.



## ‘지펠 T9000’ 한달만에 1만대 판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지펠 T9000’ 냉장고가 출시 한 달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3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양문형 냉장고 ‘마시모주끼’보다 400%가 넘는 성장세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지펠 T9000’ 냉장고가 출시 한 달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3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양문형 냉장고 ‘마시모주끼’보다 400%가 넘는 성장세다. <삼성전자 제공>

## 7월 광주·전남 아파트 경매시장 주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이 주춤했다.

8월 경매전문 지지옥션이 '2012년 7월 광주·전남지역 경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57건 가운데 낙찰건수는 28건으로 낙찰률 49.1%를 기록했다.

또 낙찰가율은 93.8%, 평균 응찰자 수는 5.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남의 낙찰률 54.2%, 낙찰가율 98.9%, 평균 응찰자 수 6.5명보다 모두 하락했다.

광주의 아파트 경쟁률 1위는 남구

진월동 한국아파트 75.9㎡형으로 모두 19명이 응찰했고, 감정가의 93%(3억6167만원)에 낙찰됐다.

또 낙찰가율 1위는 광산구 장덕동 수완자이아파트 147.8㎡형으로 감정가 3억3000만원의 107%(3억5200만원)에 낙찰됐다.

전남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진행 건수가 33건으로 전남(29건)에 이어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낙찰률은 72.7%, 낙찰가율은 93.1%, 평균 응찰자 수는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햇반값 10년만에 9.4% 인상

### 맥주·라면·우유 등 식탁물가 들쭉

세계적인 식량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8일 유통업체와 식품업체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즉석밥 햇반이 지난달 30일부터 개당 1280원에서 1400원으로 9.4% 오른 가격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등 가공식품 가격의 급등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햇반 가격이 오른 것은 10년만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쌀값이 큰폭으로 오르는 등 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압박을 호소하며 더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또 다시다(500g) 가격도 6.5% 올랐다.

이밖에 정식품의 하얀두유가 오는 8~10월 13% 인상될 예정이며 다른 가공식품들의 가격인상 욕구도 일제히 분출되고 있다. 이미 하이프진로가 지난달말부터 맥주 출고가를 5.93% 인상하면서 현재 대형할인점에서는 대표상품인 하이프맥주(350ml\*6개) 가격이 7250원에서 7690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의 가격을 700원에서 770원으로 10% 올리는 등 6개 품목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5~10% 올린 상태이며 동원F&B도

최근 동원 삼코기 참치 100g 3개짜리 묶음을 4900원에서 5380원으로 올리는 등 가격을 6.7~9.8% 인상했다.

이 같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주요 곡물가격 급등이 곡물 수입에 과급되면서 가공식품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옥수수, 밀, 콩 등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식탁물가 상승 압력에 취약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가공식품에 이어 이달말부터는 우유 값 인상을 시작으로 제분, 사료 등 원재료에 이어 빵, 두부, 국수, 소주의 가격상승도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03.23 (+16.43)
▼ 코스닥지수	471.42 (-0.18)
▼ 금리 (국고채 3년)	2.76% (-0.02)
▼ 원·달러 환율	1,128.30원 (-0.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최근 5년 대출이자율

### 외환-국민銀 順 높아

최근 시중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대출이자율이 가장 높았던 시중은행은 외환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 성적 평가하는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5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협·기업은행 등 7곳의 지난 5년간 원화 대출금리에 대비한 수입 이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그 다음으로 대출이자율이 높았고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간을 200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로 설정했고 매분기 원화대출채권 평균잔고에 수입이자를 대입해 이자율을 계산한 뒤 평균치를 구했다.

외환은행의 연평균 이자율은 7.21%이고, 분기별 평균 이자율은 1.80%에 이르렀다.

2008년까지 2%를 훌쩍 넘었던 분기별 이자율은 하향세로 돌아서 2011년 1분기 1.56%를 기록했다가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에는 시중은행중 가장 높은 1.61%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 방수

##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 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 공정직업
-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 전국최대시공팀 직접운영
- 시공을 원하시는 분!

####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빨래 건조대도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열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된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틀어서 물바닥이 원할하다. ※ 50기 이하 도랑 및 이리도 동서기법보장이 완벽 고갈조치 할수 있습니다.

####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기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인데 지금도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도 외도 물바닥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반까지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인데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반 영구적이라 시공을 했는데 역시 슬라브 지붕세는데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용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틀어서 얼어서 돌아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틀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많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릴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용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